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취재기 : ‘안 돼요’ 소리 덜 들으려면



지난 5월13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의 한 축구경기장 1층. 관중 대신 난민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는 구호물품들이 쌓여 있다.

안녕하세요. JTBC 홍지용 기자입니다. 올해 5월10일부터 14일까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지역을 취재한 후기를 전달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및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취재 허가 하에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취재할 기자님에게 저의 시행착오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행착오 1. “거긴 안 돼요.”

지난 13일 피란민들의 거점으로 쓰이는 르비우의 한 축구 경기장을 취재할 때, 요청받은 내용입니다. 뉴스룸 현장 중계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

다. 난민대피소 촬영 및 인터뷰까지 허락 받아서 다 마치고, 경기장 전경을 찍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요청을 받은 겁니다.

경기장 관계자들은 경기장 위치가 특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방송을 보고, 이곳을 미사일로 폭격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판단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인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대피소가 방송을 탄 직후 폭격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지 방송은 “마리우폴의 한 극장이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대피소가 됐고, 지하실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20분 뒤에 러시아군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의 요청을 가능한 따르기로 논의했습니다. 저는 생방송 직후 떠나지만, 남아 있는 난민들은 폭격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서 경기장의 이름과 주소, 거주하는 난민의 규모 등 러시아군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뺐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 경기장 관계자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밀그림도 축구장이 특정되지 않게 제한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어느 곳에서나, 공습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JTBC 취재진이 르비우에서 폭격당한 피해장소를 취재할 때도 비슷한 요청을 들었습니다. 다리나 기차길 등 기간시설이 조금이라도 찍힐 것 같으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찍지 마세요(Don't shoot)”라고 연신 소리쳤습니다. 혹시라도 눈에 띄면,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였습니다. 1주일에도 서너번, 잦을 때는 하루에도 대여섯번씩 공습정보가 울리는 현실 속에서, 위험은 곧 일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검문에 나선 군인들도 군부대를 향해서는 카메라를 놓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했습니다.

- 경찰과 군인을 촬영하지 않을 것. 특히 군인의 신원이나 주소를 노출하지 않을 것.
- 기간시설(발전소, 철도, 교량 등)의 전경을 찍거나 주소를 노출하지 않을 것.

지난 5월11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추모의 벽.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 활동가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벽을 세웠다.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군인들의 사진과 추모글이 남겨져 있다.



- 기차역에서 열차 시간표나 차량 번호, 목적(경유)지 동선을 찍지 않을 것.
- 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의 외경을 찍거나 주소를 노출하지 않을 것.

▶시행착오 2. “인가 받았습니까?”

검문을 받을 때든, 취재를 요청할 때는 현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현지 취재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인가(Accreditation)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전 지역을 취재하거나 밤 10시 이후 통금 시간에 취재할 때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반드시 갖고 다녀야 합니다. 후방 어느 곳도 공습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격을 당하지 않은 체르니우치에서는 요구되지 않던 서류입니다)

인가 발급에는 짧으면 3~4일, 최대 1주일 정도 걸립니다.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사항, 한국 여권과 한국 프레스카드를 첨부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저는 한국기자협회의 국제프레스카드를 썼습니다). 인가서를 회신 받으면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출력해서 항상 갖고 다녀야 합니다. 사진기자, 영상 취재기자 등 모든 취재진이 각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서류가 있으면, 거의 모든 공공시설에 취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 병원, 구호시설 등입니다(물론 군 통제 지역은 인가를 받았어도 취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검문에서 검열을 당하거나, 체포·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공시설을 취재할 수 없습니다. 시내 광장이나 일부 민간시설, 비영리구호단체 정도에 양해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처럼 언론인에게 인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현지에 러시아군 스파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습에 필요한 위치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스파이가 검거된 적도 있었습니다.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인가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이유입니다.

▶시행착오 3. “우린 우크라이나 다녀왔어요.”

지난 6일 루마니아의 미 공군기지 미하일 코갈니체아누를 취재할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기지를 방문할 예정이었고, Digi24 등 루마니아 언론들이 기지 주변에서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그들은 정오 중계를, 저는 저녁 뉴스를 중계를 준비했습니다. 국적은 달랐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고, 통성명을 하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인가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서부를 취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현지 분위기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한 루마니아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전부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어요. 지난 3월예요.” 전쟁 초기부터 다들 키이우는 한번씩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우폴을 다녀온 기자도 있습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서 일부 지역만 취재하는 한국 언론과는 달랐습니다.

취재에 대한 갈증은 르비우에 들어가서 더 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달 초 서부의 르비우에 들어갈 때쯤, 이미 그곳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외신들은 먼저 중부와 동부로 향했습니다. 부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같은 전쟁범죄들이 취재대상이 됐고, 마리우폴을 빠져나오는 난민들이 거치는 자포리자가 취재전진 거점이 됐습니다. 게다가 르비우에 머물렀던 많은 대사관 임시사무소들도 속속 키이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

국 대사관도, 한국 대사관도 이미 키이우로 떠난 뒤였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누비는 CNN을 매일 밤 화면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귀향 행렬의 의미를 정확히 담을 수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떠난 5월 중순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로 귀국하는 행렬이 탈출하는 행렬만큼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하르키우와 같은 격전지로도 돌아가려는 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재건하고 일상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전선에서 일상을 찾으려한다는 말이 언뜻 역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전방을 다녀온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찾아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리우폴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도시는 시내의 주요 기능이 유지되고 있고, 공습 피해는 대체로 시 외곽에 집중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내 중심부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되물었습니다. 포격과 공습을 넘어선 전면전은 일부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빈부격차로 가난한 난민들은 해외 이민이 어려웠고 “암에 걸리는 것이나 미사일에 맞는 것이나 확률은 비슷하다”라며 체념하고 고향에 돌아가기도 한다는



지난 5월17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위치한 메디카 국경검문소 앞. 두 나라를 도보로 오갈 수 있는 검문소이다. 좌측에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출국하는 난민은 보이지 않고, 우측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선전전 속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이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증해서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말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는 무엇인지(사실), 국제 정세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분석), 결국 한반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추론)…지금까지는 공론 형성의 토대가 되는 전쟁의 실체를 취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정부가 여행금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외신 의존

적인 보도만이 가능했고, 그 결과 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힌 외신의 관점까지도 투영됐습니다.

이러한 취재의 장벽은 점차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키이우로 복귀한 뒤, 키이우를 비롯한 내륙 지역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취재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취재하는 분들이 부디 시행착오를 넘어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의 실체적 진실을 다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